

# 고려 恭愍王대 太廟樂章의 개찬 양상과 그 의미\*

김명준\*\*

## <차 례>

1. 서론
2. 전사(前史)
3. 공민왕의 1차 개찬 악장
4. 공민왕의 2차 개찬 악장
  - 1) 원 세조의 태묘악장
  - 2) 공민왕의 2차 악장
5. 결론

## <국문초록>

고려시대 태묘악장의 개편은 예종, 의종 그리고 공민왕 대에 각각 있었다. 예종은 ‘제후’ 국의 예에 따라 악장을 정비하면서 9실 9장을 뒀으로써 ‘고려’적(高麗的) 예제를 수립하고, 묘실의 대상을 현재 군왕을 중심으로 선정함으로써 악장의 현재성을 추구하였다. 의종은 두 곳의 태묘실을 교체하였으며 제례 절차를 세분화하고 절차마다 악곡을 두어 의례의 품격을 높였다.

공민왕 대에는 태묘악장을 두 차례 개찬하였다. 1차 개찬에서 묘실은 9실을 유지하면서 태조, 혜종, 현종을 제외한 나머지 6실을 공민왕의 직계 6대조로 교체하였고 악장은 묘실마다 단장(單章)만 두었다. 중시조의 조종을 원종(元宗)으로 삼은 것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범원(凡元) 세력을 제어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공민왕의 1차 개찬은 총체적 위기와 권력 집단 간 내분까지 겹쳐 통치의 온전성까지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한림대학교 교비연구비(HRF-201309-003)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림대학교

다.

2차 개찬은 대외적으로는 원·명을, 대내적으로는 권신(權臣) 세력들을 의식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원의 악장을 염두에 두어 초헌의 묘실은 7실로 조정하였고 제례 절차마다 악장을 두었다. 원이 태묘제의 본식(本式)에서 벗어나자 공민왕은 오히려 이전의 9실의 변식(變式)에서 7실의 본식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이를 통해 ‘부-자’ 계승을 강조하여 칠묘제 제주(祭主)의 군주임을 보여 왕권 강화와 위상 제고 동시에 꾀했던 것이다. 따라서 공민왕 대의 2차 개찬 악장은 1차 개찬에서 자책과 자성을 넘어 대외적으로는 고려의 위상을 제고하고 대내적으로는 군왕으로서의 자긍심과 친정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핵심어** : 태묘제, 칠묘제, 악장, 정치문화, 예종, 의종, 공민왕

## 1. 서론

이 논문은 고려 공민왕(1330~1374) 대 두 차례에 걸쳐 개찬된 태묘악장의 양상과 그 의미를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고려의 태묘악장은 예종(睿宗, 1079~1122) 때 송의 대성악(大晟樂)을 수용하면서 처음으로 개찬되었으며, 이후 의종(毅宗, 1127~1173)과 공민왕 때 각각 개찬이 있었다. 『고려사』 악지(樂志)에는<sup>1)</sup> 예종과 공민왕 때 개찬된 악장만 기록되었으며, 의종 대의 것은 예지(禮志)에<sup>2)</sup> 그 윤곽만 보일 뿐이다. 이들 악장은 모두 아악(雅樂)[대성악]에 기반을 두었으나,

1) 『고려사』 권70 악지 아악 태묘악장.

2) 『고려사』 권60 예지 길례대사(吉禮大祀) 태묘(太廟); 권70 악지 「등가현가악일주절도(登歌軒架樂迭奏節度)」. 예지는 의종 때 편찬된 『상정고금례(詳定古今禮)』를 기본으로 하고 여러 책들을 참고하여 정리된 것이므로 태묘 묘실의 신위가 의종 때임을 알 수 있다.

당시 상황에 따라 적지 않은 변화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중세 국가 제례 가운데 교사제(郊祀祭)와 더불어 중요하게 여긴 종묘제(宗廟祭)[태묘제]는 처음 정비된 이후에는 좀처럼 수정과 교체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고려 태묘악장의 개찬은 관심을 끈다. 아악을 창제했던 송(宋)의 경우 태묘악장을 개찬하지 않았고,<sup>3)</sup> 송의 아악을 수용했던 원(元)은 세조(世祖) 4년(1263)에 초창(初創)하고 8년(1267)에 1실(室)만을 추가하여 악장을 수정하였을 뿐<sup>4)</sup> 묘실의 교체는 없었다. 그리고 전대의 아악을 받아들인 명(明) 역시 처음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sup>5)</sup> 하지만 고려는 예종, 의종 그리고 공민왕 때 묘실의 교체와 악장의 개찬이 있었으며 특히 공민왕 대에는 두 차례나 개편이 있었다. 이는 고려 궁중이 아악 태묘악장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고려 태묘악장에 대한 논의는 박기호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예종 대의 태묘악장을 “고려 왕실이 안정되고 문화가 정착된 것을 찬양하기 위해 제작된 서사시”로, 공민왕 12년의 1차 개찬 태묘악장을 “고려 왕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제작된 서사시”로 보았다.<sup>6)</sup> 이러한 논의는 고려 태묘악장의 개찬이 현재 군왕을 중심에 놓고 이루어졌다 점을 시사한 것으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의 연구는 역사적 맥락에서의 성립 배경과 악장사적 조망이 다소 소략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필자는 예종 대 태묘악장의(<구실등가(九室登歌)>) 성립 배경에 대해 “대내적으로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고 대외적으로는 요(거란)·금(여진)로부터의 위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임”을 논한 바 있다.<sup>7)</sup>

필자는 이러한 선행 성과에 힘입고 고려 공민왕 대의 태묘악장의 의미

3) 『송사(宋史)』 권134 악지 악장 「건릉이래사향태묘일십육수(建隆以來祀享太廟一十六首)」.

4) 『원사(元史)』 권69 악지 「종묘악장(宗廟樂章)」.

5) 『명사(明史)』 권61 악지.

6) 박기호, 『고려 조선조 시가문학사』, 국학자료원, 2003, 111면.

7) 김명준, 「고려 예종 대 <구실등가(九室登歌)>의 성립 배경과 악장사적 의미」, 『어문논집』 68, 민족어문학회, 2013.

를 찾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 연구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공민왕 20년의 2차 개찬 태묘악장을 더불어 검토하고자 한다.

논의가 기대한 대로 이를 수 있다면 고려 공민왕 대의 악장 개찬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 고려 태묘악장의 특징과 한국 악장사의 구도를 그리는데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2. 전사(前史)

[표 1. 예종 대 태묘악장-구실등가]<sup>8)</sup>

절차	묘실 왕명	악장	형식	곡명
초헌	제1실 태조(太祖)	정성(正聲): 受天靈符 …… 중성(中聲): 應天開基 ……	4언 8구	태정지곡(太定之曲)
	제2실 혜종(惠宗)	정성: 諒彼先王 …… 중성: 勇智傑然 ……	4언 8구	소성지곡(紹聖之曲)
	제3실 현종(顯宗)	정성: 丕顯烈祖 …… 중성: 於穆聖祖 ……	4언 8구	흥경지곡(興慶之曲)
	제4실 덕종(德宗)	정성: 德由天生 …… 중성: 震德離潛 ……	4언 8구	엄안지곡(嚴安之曲)
	제5실 정종(靖宗)	정성: 繼理受成 …… 중성: 恭讓允塞 ……	4언 8구	원화지곡(元和之曲)
	제6실 문종(文宗)	정성: 允文文王 …… 중성: 美哉於乎 ……	4언 8구	대명지곡(大明之曲)
	제7실 순종(順宗)	정성: 惟王奉天 …… 중성: 於穆先王 ……	4언 8구	익선지곡(翼善之曲)
	제8실 선종(宣宗)	정성: 堯仁舜孝 …… 중성: 有樂在庭 ……	4언 8구	청녕지곡(淸寧之曲)
	제9실 숙종(肅宗)	정성: 惟皇肅考 …… 중성: 於鑠皇考 ……	4언 8구	중광지곡(重光之曲)

8) 『고려사』 권70 악지 아악 태묘악장.

고려 예종은 대성악[아악] 수용 이후 가장 먼저 태묘악장을 정비하였다. 고려는 송과의 관계에서 ‘제후’ 국의 예에 따라 악장을 편성하였다. 아악 제례에서 제후국은 악장을 등가악(登歌樂)에 한정하여 전폐, 초헌, 철변두에만 쓸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고려 예종은 등가악장(초헌)만을 둔 것이다. 다만 초헌례에서 제후국은 2소 2목의 5묘제를 따라야 하나 예종은 9실 9장을 됴으로써 고려적 예제(禮制)를 수립하고 악장 제작의 전통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리고 묘실 대상을 현재 군왕을 중심으로 선정함으로써 악장의 현재성과 추후 개찬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이렇게 하여 예종 대의 태묘악장은 1대 태조(太祖), 2대 혜종(惠宗) 그리고 예종의 직계 3대조 7인의 선왕을[덕종(德宗), 정종(靖宗), 문종(文宗), 순종(順宗), 선종(宣宗), 숙종(肅宗)] 대상으로 하였다.

악장은 정성(正聲) 중성(中聲) 제도에<sup>9)</sup> 따라 각 묘실마다 2편이 있으며, 4언 8구의 형식을 가졌다. 내용의 구성은 『시경(詩經)』 아송(雅頌)의 전통을 따르고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사공(事功)이 반영되어 악장의 설득력을 높였다. 그리고 현재 군주와 후왕의 ‘효’를 강조하여 왕실의 당연한 질서를 강조하고 피치자들에게 효의 치환태(置換態)인 충을 유도하였다. 또한 현왕 자신에게 군주로서의 국가 영속의 책무를 환기시킴으로써 악장의 긴장성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표 2. 의종 대 태묘악장]<sup>10)</sup>

절차	묘실	곡명
입문(入門)		정안지곡(正安之曲)
관세(盥洗)		정안지곡(正安之曲)
승전(升殿)		정안지곡(正安之曲)

9) 정성·중성 제도는 대성악을 제정할 당시 위한진이 제안한 것으로, 연주하는 시기가 정기(正氣)인지 중기(中氣)인지에 따라 그에 맞는 정성과 중성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宋惠眞, 『韓國雅樂史研究』, 민속원, 2000, 19~20면.

10) 『고려사』 권60 예지 길례대사(吉禮大祀) 태묘(太廟); 권70 악지 「등가헌가악일주 절도(登歌軒架樂迭奏節度)」.

출입소차(出入小次)		정안지곡(正安之曲)
영신(迎神)		흥안지곡(興安之曲)
진조(進俎)		풍안지곡(豐安之曲)
작헌(酌獻) [초헌(初獻)]	1실 태조	태정(太定)
	2실 혜종	소성(紹聖)
	3실 현종	흥경(興慶)
	4실 문종	대명(大明)
	5실 순종	익선(翼宣)
	6실 선종	청녕(淸寧)
	7실 숙종	중광(重光)
	8실 예종(睿宗)	미성(美成)
	9실 인종(仁宗)	이안(理安)
음복(飲福)		희안지곡(禧安之曲)
문무퇴(文舞退), 무무진(武舞進)		숭안지곡(崇安之曲)
철변두(徹籩豆)		공안지곡(恭安之曲)
송신(送神)		영안지곡(永安之曲)

의종 대의 태묘악장은 남아 있지 않지만 제례 절차와 묘실의 군주 및 악곡명은 전한다. 예종 대와 크게 달라진 점은 묘실의 주인이 교체된 것이다. 제4실의 덕종과 제5실의 정종이 빠지고, 대신 예종과 인종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는 9실을 유지하면서 의종 당대를 기준으로 직계 6대조를 태묘실에 안치했던, 전대의 전통을 계승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각 묘실의 음악 또한 예종 대의 그것을 사용하였다. 다만 새롭게 추가된 예종과 인종의 음악은 불가피하게 새로 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악장의 경우 남아 있는 기록이 없어 알 수는 없지만 묘실의 악곡이 계승되었던 만큼 예종과 인종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사용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sup>11)</sup>

11) 「등가헌가악일주절도(登歌軒架樂迭奏節度)」에 정성 중성 악기가 편성되어 있지 않아 악장이 단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악곡 자체가 남아 있어 위와 같은

이렇듯 의종 대의 태묘악장은 예종 대의 것을 소폭 개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절차와 그에 따르는 악곡을 볼 때, 개편의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기록 상의 한계는 있지만) 예종 대의 태묘악장의 개찬은 초헌 9실 악장에 초점을 두었고 나머지 제례 절차와 악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악 수용 초기라는 시간적 한계와 왕권 회복의 시급성 등이 작용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의종은 제례 절차를 비교적 정교히 하고 매 절차마다 악곡을 둬으로써 의례의 품격을 높이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악과 아악 제례의 원산지인 송의 악곡을 인용한다든지 제례 절차를 보다 세목화 하고 있는 점에서 그러하다. 고려 의종은 송의 ‘풍안’, ‘희안’, ‘정안’의 악곡을 제례 절차에 적극 활용했으며, 초헌례 이전의 절차에 대해 송이 4단계로 나누어 진행한 반면 고려 의종은 6단계로 더 세분화했기 때문이다. 이는 대외적으로 의종이 중세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송 못지않은 의례 문화의 선진국임을 표명하려는 의도와 함께 대내적으로 실추된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려 했던 노력의<sup>12)</sup> 결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 3. 공민왕의 1차 개찬 악장

고려의 태묘악장은 의종 이후 약 2세기 동안 개찬이 없었다. 의종이 30~40년 만에 개찬한 것과 비교할 때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의종 대의 태묘악장이 고려의 태묘제를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태묘악장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개수되었던 점을 상기할 때, 고려후기사가 무인정변, 원 간섭 등 왕실의 자기 돌보기가 미편했던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 공민왕 12년(1363) 5월 정해일에 이르러 태묘제와 악장은 개

추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12) 朴龍雲, 『高麗時代史(下)』, 一志社, 1987, 409면.

편되었다.<sup>13)</sup>

공민왕 대 1차 개찬 악장에 대해 박기호는 “절실함이 부족하고, 독창적이고 주체적인 의식에 의해 제작된 것이 아니라 예종 대의 것을 형식적으로 답습하는 데 급급하였다.”고<sup>14)</sup> 하였다. 주장의 근거는 전에 있던 각 묘실에서의 전절 악장과 후절 악장이 사라졌고, 당시 공민왕 대가 원 부마국으로 전략하여 내정 간섭을 받고 있던 상황임을 들었다.<sup>15)</sup> 하지만 그가 전절과 후절 악장이라 한 것은 아악의 정성 중성 제도를 잘못 이해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고 공민왕 대를 원의 지배가 여전하다고 이해한 것은 공민왕 대의 정치 상황을 간과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공민왕 비(妃)인 휘의노국대장공주(徽懿魯國大長公主)[보탑실리]가 원(元) 위왕(魏王-볼로드테무르)의 딸이고 공민왕 통치 기간은 부원(附元) 권문세족이 어느 정도 세력을 떨치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러나 공민왕은 집권 5년(1356) 이후부터 대외적으로는 반원정책(反元政策)을, 대내적으로는 왕권 강화 및 사회경제적 모순의 제거에 노력을 경주했던 점을 볼 때 원이 간섭했던 전대와 균질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러한 공민왕의 개혁에는 중원의 강자가 원에서 명(明)으로 이동한 것과 관련이 있다.<sup>16)</sup> 또한 1차 개찬이 있기 전 공민왕은 10년에 흥건적이 내침하여 개경이 함락되자 복주(福州)[안동(安東)]으로 피신하였다가 12년 윤3월 귀경하던 도중 머물던 흥왕사(興王寺)에서 반란군에게 침입을 받기도 했다.<sup>17)</sup> 이렇게 공민왕 집권 전반기는 개혁 의지와 여건이 상호 충돌하는 시기로 국정

13) 『高麗史』 卷70 樂志. “恭愍王十二年五月丁亥 還安九室神主于太廟, 新撰樂章.” “공민왕 12년(1363) 5월 정해일. 다시 구실의 신주를 태묘에 안치하고 새로 악장을 찬제 하였다.” 『고려사』 원문은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번역은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국역 고려사』(경인문화사, 2011) 및 사회과학원 고전연구실, 『국역 고려사』(신서원, 1991)를 따랐다.

14) 박기호, 같은 글, 97~98면.

15) 박기호, 같은 곳.

16) 박용운, 555면.

17) 『고려사』 권40 공민왕 12년 윤3월. “초하루 신미일. 5경(更)에 김용(金鏞)이 몰래 패거리 50여명을 시켜 왕이 묵고 있던 행궁을 침범하게 했다.”

전반에 걸친 쇄신이 절실했던 시기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공민왕 12년 5월의 악장 개찬은 현재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는 공민왕의 절실함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3. 공민왕 대 태묘악장-1차 개찬(공민왕 12년, 1363)]

절차	묘실 왕명	악장	형식
초헌	제1실 태조	於皇太祖, 景命是膺 ……	4언8구
	제2실 혜종	天造我家, 或不來庭 ……	4언8구
	제3실 현종	天扶景業, 用否而昌 ……	4언8구
	제4실 원종(元宗)	明明我祖, 德合乾坤 ……	4언8구
	제5실 충렬왕(忠烈王)	朝彼元朝, 始尚公主 ……	4언8구
	제6실 충선왕(忠宣王)	念茲先祖, 陟降庭止 ……	4언8구
	제7실 충숙왕(忠肅王)	於皇烈祖, 厥德侯純 ……	4언8구
	제8실 충혜왕(忠惠王)	徂茲戎平, 寢廟載寧 ……	4언8구
	제9실 충목왕(忠穆王)	英明果斷, 有赫其光 ……	4언8구

공민왕 대 1차 개찬 작업은 전대의 9실을 유지한 채 묘실의 주인을 대폭 교체하였고, 정성 중성 제도를 폐지하여 각 묘실마다 단장(單章)의 악장만 두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묘실의 대상은 (예종·의종 대 그러했던 것처럼) 현재의 군주를 중심으로 불천위 3대(태조, 혜종, 현종) 그대로 두고 나머지 6실은 공민왕의 직계 6대조로 교체하였다.

[표 4. 고려 왕실 계보: 공민왕 대까지]

- 색: 태묘약장 묘실의 대상, #: 예종, 의종, 공민왕 대 묘실 대상

- \*: 예종 대 묘실 대상, \*\*: 의종 대 묘실 대상, \*\*\*: 공민왕 대 묘실 대상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 태조	2.# 혜종														
	3. 정종														
	4. 광종	5. 경종	7. 목종												
	대종	6. 성종													
	안종	8.# 현종	9.* 덕종												
			10.* 정종												
			11.* ,** 문종	12.* ,** 순종											
			13.* ,** 선종	14. 현종											
			15.* ,** 숙종	16. ** 예종	17. ** 인종	18. 의종									
							19.	22.	23.	24.	25.	26.	27.	28.	29.

							명종	강종	고종	*** 원종	*** 충렬 왕	*** 충선 왕	*** 충숙 왕	*** 충혜 왕	*** 충목 왕	
							20. 신종	21. 희종								30. 충정 왕
														31. 공민 왕		

묘실의 대상을 선정할 때 예종과 의종은 비록 선왕이라 할지라도 같은 향렬 혹은 자신보다 아래 향렬의 군주를 제외하였으나 공민왕의 경우 동복(同腹) 형인 충혜왕과 조카 충목왕을 9실에 두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9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한 결과로 볼 수 있으나, 실상 중시조(中始祖)의 조종(祖宗)으로 원종을 삼고자 했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충혜왕이나 충목왕을 묘실에 두지 않으려면 강종이나 고종이 중시조의 조종이 되어야 하나 공민왕은 이를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공민왕은 등극 이후 강력한 개혁 정책을 펴고자 했으나 부원 세력들에 의해 번번이 좌초되고 말았다. 결국 그들과의 첨예한 대결 국면에서 내놓은 카드가 바로 ‘원종’이었던 셈이다. 주지하다시피 고려 후기 외교사에서 고려가 원과 제휴하게 된 결정적인 인물이 ‘원종’이다. 그가 세자 시절 중원에서 당시 왕자(王子)였던 쿠빌라이(훗날 원 세조)를 양초지교(梁楚之郊)에서 만나 서로의 처지를 확인했으며, 양자가 등극한 이후에는 이전의 약속대로 양국은 친선 우호의 길로 나가게 되었던 것이다.<sup>18)</sup> 관계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가 ‘출륙(出陸)’[개경환도]과 ‘친조(親朝)’로, 이 둘은 원이 고려에 끈질기게 요구한 것들이었다. 마침 원종이 이들의 요구를 들어줌

18) 왕전(王腆-태자 시절 원종)과 쿠빌라이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이개석, 『고려-대원 관계 연구』(지식산업사, 2013), 203~217면을 참고하시오.

으로써 원의 침략은 막을 내리고 무인정권도 그 수명을 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종의 친원(親元) 정책은 원을 통한 왕권의 회복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sup>19)</sup> 그러한 원종을 상징적 중시조로 두고자 했던 것은 과거의 원(元)을 통해 현재 원(元)을 막고자[以元制元] 했던 공민왕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초현] 원종(元宗) 제4실

밝고 밝으신 우리 조종께서는, 덕행이 하늘과 같도다.  
 거룩한 그 덕으로, 후손에게 복을 내리셨네.  
 정결하게 하고 제사를 올리노라니, 서직(黍稷)이 향기롭도다.  
 이를 흠향하시어, 영원히 나라의 강녕(康寧)을 지켜 주소서.  
 明明我祖, 德合乾坤. 丕顯其德, 垂裕後昆.  
 克禋克祀, 黍稷惟馨. 是歆是享, 永保康寧.

원종의 덕은 무궁하고 거룩하여 후손들에게 복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 또한 후손은 내려주신 복에 감사하여 제사를 받들고 ‘永保康寧’ 해주기를 염원하는 것으로 노래를 마친다. 이렇게 공민왕은 ‘국가 안보와 보전’을 원종을 빌어 소망하고 있는 것이다. 군주가 집권 안정기에 ‘국권 수호’를 노래하고 있다면 보다 높은 단계의 왕권 강화로 읽을 수 있지만, 암살 위협과 대외적 악재가 겹친 상황이라면 이는 ‘회복’ 내지 ‘유지’로 봐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공민왕은 실추된 왕권의 최소한의 회복과 목숨 보존을 노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자신을 위협하는 범원(凡元) 세력들을 제어하기 위하여 ‘원종의 역사적 영상’을 빌어 왔던 것이다. 이는 지금의 ‘원’을 -범원 세력- 있게 한 근본이 ‘원종’이고 그 원종의 후손이 현왕이기 때문에, 현왕에 대한 위협은 그들 자신들의 존재까지 부정될 수 있음을 환기한 것이기도 하다.

19) 박용운, 같은 글, 502~506면.

[초헌] 충렬왕(忠烈王) 제5실

저 원나라 조정에 조근(朝覲)하여, 처음으로 공주(公主)를 배필로 하셨네.  
왕희(王姬)의 수레가, 우리 땅에 내려오셨도다.  
자손이 끊이지 않음은, 하늘의 복을 받음이네.  
천만년이 되도록,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시도다.  
朝彼元朝, 始尙公主. 王姬之車, 降于東土.  
子孫縣縣, 受天之祜. 於千萬年, 爲母爲父.

선대 원과의 긴밀한 관계는 충렬왕 실에 오면 절정에 이른다. 주지하다시피 충렬왕은 세조의 딸인 제국대장공주[홀도로게리미실]을 왕비로 맞이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원 세력권 안에 있었던 국가들 가운데 충렬왕의 고려는 비교적 국가 위상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부마국으로서 한계는 있었으나 충렬왕은 나름 국가 안정과 왕권 신장에 주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sup>20)</sup> 노래 전반부는 충렬왕을 ‘친조’, ‘원 부마’의 군주로 상징하여 친원적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으며, 후반부에는 후왕들 모두 원의 혈통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역시 앞서의 노래와 마찬가지로 고려 왕실과 원의 관계를 제시함으로써 부원 세력들의 도전을 차단하고자 했던 의도가 내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왕권을 지켜내려 했던 선대의 초상을 함께 그려냈던 것이다.

[초헌] 태조(太祖) 제1실

아! 태조 황제께서는, 대명(大命)을 받으셨도다.  
문득 삼한을 차지하셔서, 인정(仁政)을 널리 펴셨도다.  
후손들이 불초하여, 때때로 간난(艱難)이 거듭 생겼네.  
이제 흠향하시고 편안히 계시어, 영원토록 계승하게 하옵소서.  
於皇太祖, 景命是膺. 奄有三韓, 仁滂政凝.  
後嗣不類, 時艱荐興. 居歆引逸, 永永其承.

20) 박용운, 같은 글, 543면.

대개 창엽 군주에 대한 노래는 대상을 신격화하고 예찬의 시선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 경우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건국 군주에 대한 송도가 그러하듯 개국은 천명에 의한 것이어서 창엽의 간난은 생략되고 인치(仁治)의 결과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4구까지는 관습적 수사에 의지하여 태조를 그리고 있다. 하지만 이후 2구에 이르러서는 공민왕대에 발생한 이런저런 어려움과 이에 대한 자성(自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후왕들이 건국 주(혹은 선왕)보다 같을 수 없다는 것은[後嗣不類] 관례적 겸양을 넘어선 냉철한 현실 인식이자 반성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노래 끝의 ‘영원한 계승[永永其承]’은 이러한 성찰의 결과이자 다짐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이 노래는 태조에 대한 일방적인 예찬 대신 현재 군주의 처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악장 제작 당시의 상황이 매우 절박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내가 왕위를 이은 이후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면서 조금도 게으름 없이 행동하려 했다. 그러나 정치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안으로는 어려운 일이 자꾸 닥쳐오고 밖으로는 외적들이 재차 침략해 왔으니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잘못은 하찮은 나에게 있음이 분명하다. 다행히 천지신명과 종묘사직의 영령들께서 현명하게 보호해주신 은혜와 충신(忠臣) 의사(義士)의 조력 덕분에 변란을 잘 제압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환도해 온 초기에도 하늘은 재앙을 그치지 않고서 별자리의 이변으로 경계를 보이거나 가뭄으로 재변을 나타내고 있으니 마땅히 먼저 나 자신을 책망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할 것이다. 아아! 온 나라의 모든 관료들은 나를 잘 보필해 허례허식을 일삼지 말고 정치에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힘써서 마침내 국가 중흥의 위업을 이룩하도록 하라.”<sup>21)</sup>

21) 『高麗史』卷40 恭愍王 12年 5月. “予自襲位以來, 畏天愛民, 罔敢或怠. 理與意乖, 內難屢作, 外寇再侵, 深惟厥咎, 實在眇躬. 幸賴天地神祇, 宗廟社稷之靈, 聖善保佑之恩, 忠臣義士之助, 用克制變, 以至今日. 矧當還都之初, 天不悔禍, 星芒示警, 旱魃爲災, 宜先責己, 以惠于民. 於戲! 惟爾中外大小臣僚, 尙克相余, 務求實効, 毋事虛文, 用底中興之理.”

1차 개찬이 있기 얼마 전 공민왕이 내린 교서이다. 교서에는 공민왕 집권 전반기의 고민이 압축되어 있다. 공민왕은 왕자(王者)로서 임무에 충실하려 했으나 대내외적 환경이 긍정적이지 못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그 때마다 조종의 음우(陰佑)와 충신(忠臣)·의사(義士)의 조력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는 최근에 또 일어났으니 ‘모든 관료들이 나를 보필’하여 ‘국가 중흥의 위업’을 달성하자고 하였다.

이렇듯 공민왕의 교서는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전체 관료의 동참 촉구’가 요지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교시 중간에 자성[深惟厥咎]과 자책[宜先責己]의 변을 빼놓지 않았다. 이는 위기 때마다 조령의 보호와 충신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도 ‘畏天愛民’의 자세와 성찰의 태도가 전제되었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의 위기는 인재에 천재를 더한 것으로 조령·충신·의사 이외에 모든 관료의 합심만이 이겨 낼 수 있다고 하면서 자성의 목소리를 더해 설득력을 배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치자 계급 집단이 공유하는 선전성 원칙론인 ‘혜민(惠民)’과 ‘(국가) 중흥’ 운운을 통해 저편에 있던 세력들을 회유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처럼 공민왕 대 1차 개찬은 대내외적 악재, 자연 재해 등 총체적 위기와 권력 집단 간 내분까지 겹쳐 공민왕은 통치의 온전성까지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절심함 속에서 위협 세력을 제어하고 자성을 담은 현재적 악장을 제작하였던 것이다.

#### 4. 공민왕의 2차 개찬 악장

공민왕은 집권 후반기인 20년(1371) 10월에 다시 한 번 태묘악장을 개찬하였다.<sup>22)</sup> 1차 개찬 이후부터 2차 개찬 사이 공민왕 대에 주요한 사

건이 여럿 있었는데, 왕비 사망, 원·명 교체 그리고 신돈(辛旽)의 정국 주도 등이 그것이다. 공민왕은 집권 10년 이후를 기점으로 신돈을 통해 개혁 사업을 수행하려 했다. 그 내용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전 분야에 관한 것으로 주로 기득권 세력을 겨냥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권문세족, 신진사류 등의 반발로 실패하고 만다. 또한 대외적으로 1368년 명이 원을 물리침으로써 중원의 주인은 명으로 바뀌게 되자 고려의 외교 노선은 표류하게 된다. 이처럼 왕비의 죽음과 원·명 교체로 인해 국내 부원 세력은 약화되어 가고, 신돈의 몰락으로 정국은 혼란 국면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민왕의 친정(親政)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따라서 공민왕 대 태묘악장의 2차 개찬은 대외적으로는 원·명을, 대내적으로는 권신(權臣) 세력을 의식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2차 개찬의 특징은 초헌 묘실이 7실로 조정되고, 제례 절차마다 악장을 둔 점이다. 지금까지 3차례의 개찬은 묘실의 대상을 바꾸고 절차 상의 변화만 주었을 뿐 9실의 전통을 유지한 편이었다. 하지만 공민왕 20년에 와서는 묘실이 수가 7실로 변한 것이다. 그리고 제후국의 길례(吉禮)에서 악곡의 장(章)은 등가악에서만 쓸 수 있었는데, 2차 개찬에서는 절차마다 악장을 두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변화는 어떤 의미를 지닐까. 이에 당대 문화·의례에 영향을 끼쳤던 원의 태묘악장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 1) 원 세조의 태묘악장

원의 태묘악장은 원 세조 중통(中統) 4년(1263)에 초창(初創)되었다. 그 이전에는 원의 대내외적 상황이 복잡했던 까닭에 태묘제와 악장이 정비되지 못했고, 세조가 연호를 지정한 다음부터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 세조는 송의 태묘악장을 수용하면서 초헌 칠실악장(七室樂章)을 제작하였다.

22) 『高麗史』卷70 樂志. “二十年十月乙未, 親享太廟, 新撰樂章.” “20년 10월 을미일. 태묘에 몸소 제향을 드리고 새로 악장을 짓다.”

[표 5. 원 세조 중통 4년(1263) 칠실악장(七室樂章)]<sup>23)</sup>

절차	왕명	악장	형식
초헌(初獻)	1실 태조(太祖)	天垂靈顧, 地獻中方 ……	4언8구
	2실 태종(太宗)	和林勝域, 天邑地宮 ……	4언8구
	3실 예종(睿宗) - 추존	珍符默授, 疇昔自天 ……	4언8구
	4실 황백고(皇伯考) 술적(尢赤) - 추존	威武鷹揚, 冢位克當 ……	4언8구
	5실 황백고(皇伯考) 찰합대(察合帶)- 추존	雄武軍威, 滋多歷年 ……	4언8구
	6실 정종(定宗)	三朝承休, 恭已優游 ……	4언8구
	7실 헌종(憲宗)	龍躍潛居, 風雲會通 ……	4언8구

중통 4년의 태묘악장은 4언8구의 구성을 따르면서 7실 7악장으로 제작되었다. 1구 4언의 구성은 『시경』 아송과 아악의 1자1음의 원리를 따른 것이며, 7실을 둔 것은 원이 ‘천자’국임을 자임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주대(周代)의 소목제(昭穆制)에 따르면 천자는 칠묘(七廟) 7악장을, 제후는 오묘(五廟) 5악장을 쓰게 된다.<sup>24)</sup> 이에 5대 재인 세조는 기존 군주 4인에 추존 3인을 더해 7실을 안치하여 주례(周禮)의 정통적 수용을 꾀했던 것이다.

한편 원 세조는 묘실에 신위를 안치할 때 왕실의 계보를 고려하지 않고 묘실의 순서를 정했다. 태조[징키스칸(成吉思汗)]의 아들들은 첫째 술적(尢赤)-추존, 둘째 찰합대(察合帶)-추존, 셋째 태종(太宗), 넷째 예종(睿宗)[타뢰(拖雷)-추존] 등인데, 이 가운데 3남인 태종이 2대 왕위를 이었다. 3대는 태종의 아들인 정종(定宗)이, 4대는 타뢰의 장남인 헌종(憲宗)이 그리고 5대는 4남인 세조가 그 뒤를 이었다. 이와 같이 원 전반기의

23) 『원사(元史)』 권69 종묘악장(宗廟樂章).

24) 『주례(周禮)』.

왕위 계승을 고려한다면 묘실의 순서는 ‘태조 - 술적(肅赤) - 찰합대(察合帶) - 태종(太宗) - 예종(睿宗) - 정종(定宗) - 헌종(憲宗)’ 순이어야 할 것이나, 세조는 예종(추존)의 위치를 3실에 둔 것이다. 이는 자신의 부친을 실제 왕위에 오른 태종과 나란히 하고 추존된 백부들보다 상위 반열에 놓음으로써 자신의 왕위 계승이 정당했음을 보여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중통 4년 태묘악장의 정비는 칠묘제를 통해 천자국으로서 면모를 과시하고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6. 원 세조 지원 4년(1267) 팔실악장(八室樂章)]

절차	묘실 왕명	악장	형식	곡명
영신(迎神)		齊明盛服 ……	4언8구	來成之曲
관세(盥洗)		天德維何 ……	4언8구	肅成之曲
승전(升殿)		祀事有嚴 ……	4언8구	肅成之曲
봉조(捧俎)		色純體全 ……	4언8구	嘉成之曲
초헌(初獻)	1실 열조(烈祖) - 추존	於皇烈祖 ……	4언8구	開成之曲
	2실 태조(太祖)	天扶昌運 ……	4언8구	武成之曲
	3실 태종(太宗)	纂成前烈 ……	4언8구	文成之曲
	4실 황백고(皇伯考) 술적(肅赤) - 추존	神支挺秀 ……	4언8구	弼成之曲
	5실 황백고(皇伯考) 찰합대(察合帶) - 추존	玉牒期親 ……	4언8구	協成之曲
	6실 예종(睿宗) - 추존	神祖創業 ……	4언8구	明成之曲
	7실 정종(定宗)	嗣承丕祚 ……	4언8구	熙成之曲
	8실 헌종(憲宗)	義馭未出 ……	4언8구	威成之曲
문무퇴(文舞退), 무무진(武舞進)		天生五材 ……	4언8구	和成之曲
아헌(亞獻)		幽通神明 ……	4언8구	順成之曲
철변두(徹籩豆)		豆籩苾芬 ……	4언8구	豐成之曲
송신(送神)		神主在室 ……	4언8구	來成之曲

원 세조는 4년 뒤인 지원(至元) 4년(1267)에 태묘악장을 개편한다. 개편은 제례 절차, 악곡, 악장을 정식(正式) 칠성(七成)에 맞게 새로 정비하였으며, 묘실은 증설되었다. 새로 추가된 신위는 태조 이전의 열조(烈祖, 神元皇帝)였다. 또한 묘실의 순서는 왕실의 계보를 고려하여 부친 예종은 백부들의 신위 뒤로 돌려놓았다. 이렇게 원 세조가 정식 칠성의 예에 따라 태묘악장을 재편성하고 묘실의 순서를 계통에 따라 재배치한 것은 명실공이 중원의 중심에 원이 위치하게 되었고, 왕실 내부의 권력 투쟁이 안정기에 들어섰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특히 자신과 왕권을 경쟁하던 아리부화(阿里不花)와 그의 추종 세력들이 소거되자 원 계보의 정통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태묘실의 순서를 변경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주례의 정통성을 지키고자 했던 칠묘의 소목제는 ‘열조’를 추가함으로써 변칙화 내지 무실화되고 만다. 이는 원 세조가 중화 의례를 존중하여 중원 주인이라는 상징성을 얻는 것보다는 자신의 근본을 소급하여 원 제국의 든실한 근원을 재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계산에서 비롯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지원 4년 태묘악장은 중화의 공간에서 중화의 문화를 계승하는 방향에서 벗어나 몽골족의 정통성이 부각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 2) 공민왕의 2차 악장

[표 7. 공민왕 대 태묘악장-2차 개찬(공민왕 20년, 1371)]

절차	묘실 (왕명)	악장	형식	곡명
입문(入門)		於穆清廟 ……	4언8구	궐(闕)
관세(盥洗)		有冽軌泉 ……	4언8구	궐(闕)
승전(升殿)		於穆清廟 ……	4언8구	궐(闕)
출입소차(出入小次)		維茲孝敬 ……	4언8구	궐(闕)
영신(迎神)		維精維純 ……	4언8구	궐(闕)
전폐(奠幣)		彝倫攸序 ……	4언8구	궐(闕)

봉조(捧俎)		於薦廣牡 ……	4언8구	궐(闕)
초헌(初獻)	1실 (태조)	於乎皇王 ……	4언8구	궐(闕)
	2실 (혜종)	於皇武王 ……	4언8구	궐(闕)
	3실 (현종)	休矣皇考 ……	4언8구	궐(闕)
	4실 (원종)	允王維后 ……	4언8구	궐(闕)
	5실 (충렬왕)	皇王烝哉 ……	4언8구	궐(闕)
	6실 (충선왕)	勉勉我王 ……	4언8구	궐(闕)
	7실 (충숙왕)	於乎皇考 ……	4언8구	궐(闕)
음복(飲福)		闕宮有飴 ……	4언8구	釐成之曲
문무퇴(文舞退), 무무진(武舞進)		嗟嗟烈祖 ……	4언8구	肅寧之曲
아종헌(亞終獻) <sup>25)</sup>				
철변두(徹籩豆)				
송신(送神)				

공민왕 대 2차 개찬은 초헌의 묘실을 일곱으로 하고 제례 절차마다 악장을 새롭게 제작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각 묘실의 주인과 악곡은 사서(史書)를 편찬할 당시부터 일실되어 구체적인 대상과 곡명은 알 수 없으나, 고려 의종 대에 태조, 혜종, 현종은 이미 불천지주(不遷之主)로 모셔졌고, 그 이하 4~7실은 1차 개찬 악장과 유사성이 있으므로 그 대상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2차 개찬에서는 1차 개찬 때 초헌실에 두었던 충혜왕과 충목왕을 제외한 나머지 군주들이 그들이라 할 수 있다.

공민왕이 초헌의 묘실을 7실로 둔 것은 여러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부-자’ 계승의 강조와 칠묘제를 의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왕위의 이상적인 계승은 ‘부→자’이며 이는 현왕에게 강력한 왕권을 제공하는 담보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형인 충혜왕과 조카인 충목왕을 배제했던 것이다. 게다가 천자국의 칠묘제를 염두에 두면서 묘실의 수를 ‘7’로 조정된 것 역시 제주(祭主)로서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실

25) “아종헌, 철변두, 송신” 등도 절차에 당연히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기록이 없으므로 이름만 든다.

제 공민왕 당대 주례에 바탕을 둔 동아시아 태묘제에서 천자의 정통 칠묘제를 행한 국가는 없었다. 원은 8실로 그 본식(本式)과 거리가 멀어졌으며, 1368년 건국한 명은 같은 해 정비한 태묘제 또한 4묘제로 하였기 때문이다.<sup>26)</sup> 따라서 14세기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정통의 예에 따라 칠묘제를 봉행한 곳이 공민왕 20년의 고려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아악 제례 절차에서 악곡과 악장의 병행 유무는 제례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제후국의 예는 초헌, 전폐, 철변두에만 악장을 둘 수 있다. 이에 비해 천자국은 등가악 이외에 헌가악으로 연주되는 모든 절차에서 악장을 쓸 수 있다. 예종과 공민왕 대 1차 개찬이 초헌에 무게를 두어 이루어진 것은 제후국의 예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민왕 2차 개찬에 이르러서는, 의종 대의 제례 절차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절차마다 악장을 둠으로써 제례의 격을 높였다. 따라서 정식 칠성 예에 따른 악장의 제작과 병용은 칠실제의 운영과 함께 주례가 요구하는 천자국의 위상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절차마다 악장을 둠으로써 제주(祭主)인 현왕을 미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신제 악장 16수 가운데 묘실 7수를 제외한 9수가 직간접적으로 공민왕과 연관됨으로써 2차 개찬 작업은 자연스럽게 선왕에 대한 송도에서 현왕에 대한 송축으로 그 무게 중심이 바뀌게 되었다.

공경스럽게 삼가면서, 위의(威儀)를 돕네.

既敬既戒, 攝以威儀. <관세(盥洗)>

이토록 효경스러우니, 소차에선들 감히 잊으시랴?

들어가고 나가심에 절도가 있어, 위의를 크게 드러나네.

維茲孝敬, 小次敢忘. 出入有節, 威儀孔彰. <소차(小次)>

26) 『明史』 卷61 樂志 洪武 元年. “太廟 迎神 奏太和之曲. 奉冊寶 奏熙和之曲. 進俎 奏凝和之曲. 初獻 奏壽和之曲, 武功之舞. 亞獻 奏豫和之曲 終獻 奏熙和之曲 俱文德之舞. 徹豆 奏雍和之曲. 送神 奏安和之曲. 初獻則德懿熙仁各奏樂舞, 亞終獻則四廟共之.”

어렴풋이 소리를 들으시니, 효성이 굉장하시네.  
優乎有聞, 烝烝孝誠. <영신(迎神)>

효성스러운 마음이 다하지 않으니, 맑고 순결하여 위엄이 있도다.  
孝思不匱, 有嚴清純. <전폐(奠幣)>

몸소 차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시면서, 효성으로 제향을 드리네.  
或肆或將, 以孝以享. <봉조(奉俎)>

초헌례를 행하기 전 현왕을 묘사한 것들이다. 여러 가지 표현들로 공민왕을 그리고 있지만 그 요체는 ‘위의, 공경, 효성’이라 할 수 있다. ‘위의’는 위엄과 절대성을, ‘공경과 효성’은 인격적 완성을 대변하는 것으로 군주다운 군주를[君君]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체와 상관없이 대상을 관념어로 포장함으로써 일체의 비판을 차단하고, 무조건적인 예찬 방식은 정치문학이 가져왔던 오랜 전통이다. 이러한 방식은 상황에 따라 관념어를 교체함으로써 시대적 효용성을 기대하기도 했다. 공민왕이 ‘위의, 공경, 효성’의 군주인가 하는 문제는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점은 ‘위의, 공경, 효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위엄 있는 최고 통치자가 선왕을 효성으로 공경한다.’는 문학적 사실을 통해 통치 공간(가족-사회-국가) 내의 모든 관계(부/자-장/유-군/신)를 상하의 질서로 귀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공민왕 자신이 ‘효·경’의 모범자임을 내세워 신·민 계급에게 이것과 이의 확장 형태인 ‘충’을 유도하면서 안정적(?) 고려의 질서를 구현하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수사는 이미 예종 대 태묘 악장에서 시도된 바 있지만 공민왕 대 2차 개찬에 이르러 더욱 강조되었으며, 이는 결국 공민왕이 복록의 수혜자가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다.

[초헌] 제5실(충렬왕)

성스러운 임금님이 위대하시니, 온갖 복록이 모여들었네.

진실로 천자의 집안과 대대로 혼인하셨네.  
수없이 많은 자손들이, 행복을 누리도다.  
길이 추모하는 마음은, 아! 영원하리라.  
皇王烝哉, 百祿是適. 允也天子, 世德作倅.  
子孫千億, 優游爾休. 永言孝思, 於乎悠哉.

제5실 악장에서 충렬왕을 ‘황왕(皇王)’으로 승격하고 위대성을 드러내어 복록이 찾아옴을 당연하다고 하였다. 1차 개찬 때 충렬왕이 원의 공주를 배필로 맞이한 것을 ‘친조’에 따른 것이라 했으나, 2차에 오면 이런 복록 중의 한 예로 원 황실과의 결혼을 든 것이다. 이로써 충렬왕은 결혼을 구걸했던 부마국의 제후가 아니라 애초부터 복록을 지녔던 황왕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복록은 현재도 유효한 것으로, 현재의 군주가 그 복록을 누린다고 하였다. 이처럼 2차 충렬왕 악장에서는 원의 색깔은 상당 부분 탈색하여 충렬왕의 위치를 올려놓았고, 그러한 충렬왕의 위상[복록]이 공민왕 당대에까지 발전적으로 보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초현] 제7실(충숙왕)

아! 부왕께서는, 그 덕이 밝으셨네.  
길이 천명에 짝하시니, 그 복이 두터우셨도다.  
저를 편안하게 하셔서, 복록을 누리 안락하게 하시는 도다.  
본가(本家)와 지파(支派)가 백대(百代)에 이르도록, 길이 이룩하신 것을 살피리로다.  
於乎皇考, 其德克明. 永言配命, 則篤其慶.  
綏予孝子, 菴祿爾康. 本支百世, 永觀厥成.

제7실 악장은 주체와 시간의 변주와 확장을 통해 공민왕이 복록의 적격 수혜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하늘의 덕은 부왕 충숙왕에게 전해져 두터운 복이 되었으며, 그 복은 현재 공민왕 시대에 안락함을 보장하고 미래 후손들까지 복록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 하였다.

위와 같이 5실과 7실 악장은 선왕의 덕을 기리고 있지만 실상은 공민

왕이 ‘복 받을 자격이 있음’을 거듭 노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군주에게 ‘복록’은 다양한 의미를 갖지만 현재 공민왕에게 ‘복록’은 왕권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 안정과 보장이라 할 수 있다. 대외적 환경 변화와 대내적 권력 혼란을 친정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공민왕은 부인할 수 없는 선대들의 통치 사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30대에 이르는 장구한 선대들의 국가 경영을 복록으로 위장하고 이를 재활용한 것이다.

왕이 친히 태묘에 제향을 올린 후 신하들의 하례를 받았다. 돌아오는 길에 송인문(崇仁門) 안에 어가가 멈추자 성균학관(成均學官)이 생원들과 12도(徒) 생도들을 인솔하고 가요를 바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희들이 삼가 보건대 주상전하께서는 오랫동안 악행을 저질러온 자들을 제거함으로써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으신 후, 길일을 택해 친히 태묘에 고하는 의례를 행하시니 이제 모든 제도와 문물이 원래 모습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제가 다행히 성은을 입어 학관의 자리에 있으므로 유학(幼學)과 생원을 인솔하고 길 가에 엮드려 송가(頌歌)를 바치옵니다.” (중략) “머리를 조아리며 절하노니, 우리 임금 지극히 인자하시어 모후를 봉양하며 친족과 화목하게 지내시도다. 머리 조아리며 절하노니, 우리 임금 신성하시어 군자만을 등용하고 간사한 자는 가까이 하지 않도다. 천년만년 사시어 이 백성들의 부모 되소서.”<sup>27)</sup>

인용문은 2차 개찬 악장으로 태묘제를 올린 후, 성균관에서 학관이 공민왕에게 올린 치사(致詞)와 송가(頌歌)이다. 학관은 먼저 공민왕이 그동안 왕권을 위협한 세력들을 제거한 것에 대해 칭송하고 있다. 그 세력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원 간섭기 내내 왕권을 흔들던 부원세력과 그 주변들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제거는 대내적으로는 국가기강 확립이요, 대외적으로 국체(國體) 회복이라 할 수 있다. 그리

27) 『高麗史』卷43 恭愍王 20年 10月. 親享大廟, 受群臣賀. 還次崇仁門內, 成均學官率生員. 十二徒生徒, 獻歌謠曰, “臣等伏覩, 主上殿下, 芟夷宿慝, 刑政修學, 爰擇吉日, 親行告廟之禮, 典章文物, 一遵古初. 臣於此時, 幸蒙聖恩, 獲在學官, 領幼學生員等, 俯伏道左, 以獻頌.” 頌曰, “…… 臣拜稽首, 君王至仁, 奉養母后, 睦于族親. 臣拜稽首, 君王聖神, 惟君子用, 無邇儉人, 萬有千歲, 父母斯民.”

고 태묘제를 통해 ‘제도 문물이 제자리를 찾았다.[典章文物, 一遵古初]’는 데서 문화적 자긍심을 보여주고 있다. 송가에서는 개인으로서 효성과 화목을, 통치자로서 인재 등용의 덕을 칭송하고 있다. 마치 태묘제에서 초헌례를 전후하여 공민왕을 미화한 것처럼.

이처럼 8년 전 1차 개찬을 앞두고 공민왕이 직접 신료들에게 내린 교서에서의 공민왕의 모습은 찾을 수 없고 그 대신 무용과 문덕을 갖춘 군주상(君主像)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교서와 송문(頌文)의 차이에서 비롯한 면은 있지만 태묘제 이전과 이후, 8년이 지나면서 얻는 통치 경험 그리고 국제 질서의 변화와 주체적 대응 등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민왕 대의 2차 개찬 악장은 1차 개찬 당시의 자책(自責)과 자성(自省)을 상당 부분 제거하여, 대외적으로는 고려의 위상을 제고하고 대내적으로는 군왕으로서의 자긍심과 친정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20년 동안 권좌를 지켜낸 경험과 중화의 의례를 오롯이 지키겠다는 소명의식이 함께 작용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5. 결론

앞서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려 공민왕 이전 예종과 의종 대에 태묘악장의 개편이 있었다. 고려 예종은 ‘제후’ 국의 예에 따라 악장을 정비하면서도 9실 9장을 둠으로써 고려적 예제를 수립하고, 묘실의 대상을 현재 군왕을 중심으로 선정함으로써 악장의 현재성을 추구하였다. 악장은 정성 중성 제도에 따라 묘실마다 2편을 두었으며 내용에 현재 군주와 후왕의 ‘효’를 강조하여 왕실의 당연한 질서를 강조하고 피치자들에게 효와 충을 유도하였다. 의종 대의 태묘악장은 남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 묘실의 주인은 예종 대의 덕종과 정종 대신 예종과 인종으로 교체되었다. 제례 절차는 세분화되었으며 절차마다 악곡을 두어 의례의 품격은 높아졌다. 이를 통해 외적으

로 의례 문화의 선진국임을 표명하고 내적으로는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려 했다고 할 수 있다.

공민왕 대 1차 태묘악장 개찬은 12년 5월에 있었는데, 이는 당대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 했던 공민왕의 절실함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찬 작업은 전대의 9실을 유지한 채 묘실의 주인은 태조, 혜종, 현종을 제외한 나머지 6실을 공민왕의 직계 6대조로 교체하였다. 악장은 정성 중성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묘실마다 단장(單章)만 두었다. 중시조의 조종으로 원종을 택한 것은 원종이 친원 정책을 통해 왕권을 회복하고자 했던 인물이고 지금의 ‘원’을 -범원 세력- 있게 한 근본이므로 원종의 후손을 위협하는 세력들에게 그를 통해 환기시키고자 했기 때문이다. 충렬왕의 악장도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 있는 바, 충렬왕 역시 고려에 ‘원’을 있게 하여 부원 세력이 권문세족화 할 수 있었는데, 범원 세력이 이들 (공민왕을 포함한) 후왕을 공격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존재 기반까지 부정될 수 있다는 의미를 암시했다고 할 수 있다. 태조 악장에서는 태조에 대한 일방적인 예찬 대신 현재 군주의 처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악장 제작 당시의 상황이 매우 절박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공민왕 대 1차 개찬 악장은 대내외적 악재, 자연 재해 등 총체적 위기와 권력 집단 간 내분까지 겹쳐 공민왕은 통치의 온전성까지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공민왕 대 2차 태묘악장 개찬은 20년 10월에 있었는데 대외적으로는 원·명을, 대내적으로는 권신(權臣) 세력들을 의식한 결과물이었다. 초헌 묘실은 7실로 조정하였고 제례 절차마다 악장을 두었다. 이러한 변화는 원대의 악장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원의 태묘악장은 중통 4년 초창에서는 칠묘제를 적용하여 천자국으로서 면모를 과시하고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반영되었고, 지원 4년에는 중화의 공간에서 중화의 문화를 계승하는 방향에서 벗어나 몽골족의 정통성이 부각되는 방향으로 정비하였다. 이렇게 원이 태묘제의 본식에서 변칙으로 이행한 것과 달리 공민왕은 이전의 변식에서 본식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각 묘실의 주인과

악곡은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없으나 정황상 1차 개찬 군주 가운데 충혜왕과 충목왕을 제외한 나머지 군주들로 7실을 채웠다. 7실을 든 것은 ‘부-자’ 계승의 강조와 칠묘제를 의식한 것이었다. 부-자의 왕위 계승은 현재 군주에게는 강력한 왕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7실은 칠묘제를 감안한 것으로 제주(祭主)로서 군주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였다. 또한 절차마다 악곡과 악장의 병행은 천자국의 제례에서 가능한 것인데, 이 역시 천자국으로서의 위상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었다.

이러한 외형적 변화는 태묘제례가 선왕에 대한 송도에서 현왕에 대한 송축으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된 결과를 낳았다. 초헌례 이전의 악장은 현공민왕을 ‘위의, 공경, 효성’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공민왕을 군주다운 군주임을 드러내는 관념적 수사였다. ‘위엄 있는 최고 통치자가 선왕을 효성으로 공경한다’는 문학적 사실을 통해 통치 공간(가족-사회-국가) 내의 모든 관계(부/자-장/유-군/신)를 상하의 질서로 귀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공민왕 자신이 ‘효·경’의 모범자임을 내세워 신·민 계급에게 이것과 이의 확장 형태인 ‘충’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질서를 구현하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수사는 결국 공민왕이 복록의 수혜자가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제5실과 제7실은 선대의 복록이 현재 공민왕 때까지 오롯이 보전되었음을 노래하고 있다. 5실 악장에서 충렬왕의 원색(元色)을 없애고 황왕으로 그 위치를 높였고, 그러한 충렬왕의 위상[복록]이 공민왕 당대에까지 발전적으로 보전되고 있음을 말했다. 7실 악장 역시 부왕 충숙왕의 복록이 지금의 안락을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복록’은 공민왕에게는 왕권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 안정과 보장이라 할 수 있다. 대외적 환경 변화와 대내적 권력 혼란을 친정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공민왕은 부정될 수 없는 선대들의 통치 사실을 이용하려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민왕 대의 2차 개찬 악장은 1차 개찬에서 자책과 자성을 넘어 대외적으로는 고려의 위상을 제고하고 대내적으로는 군왕으로서의 자긍심과 친정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국역 고려사』(경인문화사, 2011); 사회과학원 고전연구실, 『북역 고려사』(신서원, 1991).

『명사(明史)』

『송사(宋史)』

『원사(元史)』

『주례(周禮)』

김명준, 「고려 예종 대 <구실등가(九室登歌)>의 성립 배경과 악장사적 의미」, 『어문논집』 68, 민족어문학회, 2013.

박기호, 『고려 조선조 시가문학사』, 국학자료원, 2003, 97~98면, 111면.

朴龍雲, 『高麗時代史(下)』, 一志社, 1987, 409면, 502~506면, 543면, 555면.

宋惠眞, 『韓國雅樂史研究』, 민속원, 2000, 19~20면.

이개석, 『고려-대원 관계 연구』, 지식산업사, 2013.

투고일 : 2014 1월 14일, 심사 : 2014년 1월 17일~2월 7일, 게재확정 : 2월 7일

<Abstract>

## Modification Pattern and The Meaning of Taemyo Akjang in King Gongmin of Goryeo Dynasty

Kim, Myung-joon

There had been reorganizations of Taemyo Akjang respectively in King Yejong, Uijong and Gongmin of Goryeo dynasty. Yejong established the practices specific to Goryeo with 9 Sil and 9 Jang (9 movements for 9 shrine-chambers) while rearranging the Akjang in accordance with an example of 'Jehuguk' and pursued the ongoing persistence of Akjang by selecting the current king as the target of shrine chamber. Uijong replaced 2 shrine chambers of Taemyo, subdivided the ritual procedures and raised the dignity by assigning music to each procedure.

King Gongmin modified the Taemyo Akjang twice. In the 1st modification, 6 chambers were replaced with 6 recent ancestor-Kings except Taejo (the Founder), Hyejong and Hyeonjong while keeping 9 shrine chambers and designated short Akjang only for each chamber. He made the rebuilder the founder in order to control the trans-Yuan power threatening his kingdom. Thus the 1st modification was carried out while even the integrity of power was not secured due to the internal conflicts among power groups on overall crisis.

The 2nd modification was the result of consciousness of the external power of Yuan and Ming and the internally influential courtiers. Shrine chamber of Choheon was rearranged to 7 chambers according to Yuan and assigned Akjang to each procedure. As Yuan changed the original

style of Taemyo ritual services, King Gongmin made 7-chambers standard rather than the altered 9-chambers and emphasized the 'father-son' inheritance as the master of ritual services for 7 shrine chambers to strengthen the royal authority and improve the status at the same time. Therefore, the 2nd modification of Akjang by King Gongmin externally improved the status of Goryeo and internally showed the pride of King of Goryeo dynasty and the confidence of direct reign beyond the self-blame and reflection of the 1st modification.

**Key words** : Taemyo Ritual Services, Ritual Services for 7 Shrine Chambers, Akjang (Movement), Political Literature, Yejong, Uijong, King Gongmin